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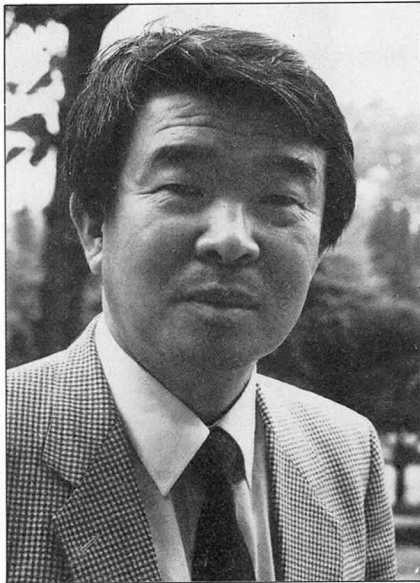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의 형성과 성장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외

李萬烈

숙명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기독교사는 민족사와의
관련하에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작업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아닐수 없다.



자신의 연구나 저작에 대하여 붓을 든다는 것은 매우 쑥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쉬운 학문연구 분위기를 실감하면서, 필자의 경우, 저작구상을 미리 털어놓음으로써 이 연구를 기어코 이룩해야 하겠다는 점에서, 우선 쑥스러움을 용서받고자 한다.

기독교에 담담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학문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自問해 본 적이 여러번 있다.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한국기독교사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유신시대가 시작될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필자에게 확연히 비치기 시작한 한국기독교계의 沒歷史性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계는 역사밖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 점은 100주년의 요란한 기념행사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자기顯示的이고 사업적인 행사에는 관심을 가져도 지나간 100여년의 역사를 엄정하게 검토해보려는 의도는 그렇게 보여지지 못했다. 또 하나, 당시까지 나타난 한국기독교사의 연구는 「교회안의 역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어 민족사와의 관련하에서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자 필자가 한국사를 전공한 것이 그런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이런 작업은,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 100여년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 근·현대사 특히 민족운동사에서 아직도 헛점으로 드러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그동안 계속해오던 한국사학사 연구를 잠시

접어두고 기독교사 연구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 81년 이후 몇차례에 걸쳐 해외에 가서 한국기독교사관계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필자는 한국기독교사에 관련된 몇편의 글을 발표하였고, 그것들을 토대로 한 몇권의 저작을 준비 중에 있다. 그 하나가 이미 출판된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1987, 대한기독교 출판사)이며, 여기에서 빠진 의료부분은 「한국의료선교사」라는 단행본으로 곧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안에 출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사 I」로서, 이것은 비록 대한성서공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긴 해도 한국기독교의 내재적 발전을 해명하는 데에 역점을 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었고, 그 성서가 읽히도록 노력한 한국인들의 열심과 더불어 한국의 기독교가 주체적으로 성장해왔음을 해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기독교 초기형성사에 관한 것으로, 성서번역, 초기의 전도, 선교정책, 교회의 설립과 제도의 설치, 초기의 선교사와 한국인 신자 등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이다. 기독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것을 연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몇편의 논문이 완성되어 있고, 조금만 더 작업하면 한편의 저작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필자는 몇년 동안 마음 속으로 앓고 있는 빚을 일단 갚게 된다. 벌써 8년전, 필자의 해직과 생계를 염려해준 신앙의 동지들이 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 연구과제와 함께 거금의 연구비를 맡겼으나 아직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연구업적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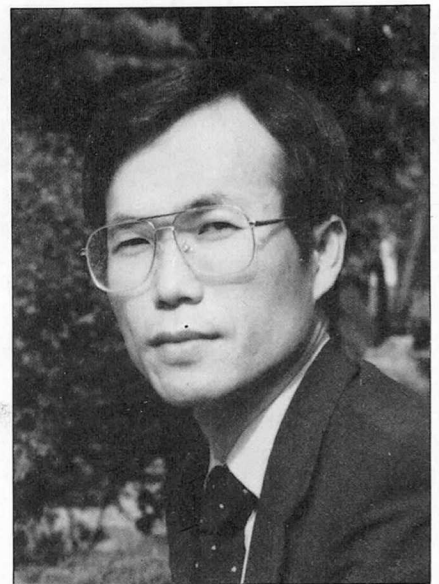
아침에도 창문을 못 여는 동네

「신림동 이야기」

조성기

소설가

나는 아침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동네에 살고 있다. 최루탄 때문이다.
6·29선언 이후가 분명한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소설로 쓸 참이다.



‘소설’이라는 단어는 「莊子」外物편에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한다. 그 부분의 귀절을 보면 ‘자질구레한 말을 꾸며 현령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니 대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원래부터 ‘자질구레한 말’로서 소위 군자들이 취해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래서 전국시대 十家中에서 가장 나중에 배치되는 것이 小說家이다. 荀子를 비롯한 성인 군자들이 그 시대에 골머리를 앓은 원인 중의 하나도 이 소설가들의 창궐이었다.

어떻게 보면 장자나 순자들이 소설가의 정체를 일찍부터 잘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질구레한 말이나 늘어놓는 자들, 자존심 내지는 명예욕은 강해서 남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大達과 大道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자들, 시대를 혼탁하게 하는 장본인들. 아닌게 아니라 이 시대도 소설 공해, 소설가 공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 공해에 나 자신도 하나의 입자로서, 아니면 한줄기 시커먼 연기로서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랄까 자책감을 먼저 언급하면서 구상 중인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나의 심정을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나는 아침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동네에 살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창문은 꼭 닫혀 있고 방안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최루탄 때문이다. 아침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시대에 나는 살고 있다. 왜 아침인데도 창문을 열 수 없는가. 이것이 내가 요즘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날 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있었다. 원고 전달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그곳을 약속장소로 정하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교문 안쪽에서 분신자살한 김세진군의 추모제를 마친 학생들이 교문을

향해 몰려 나왔다. 전경들이 총류탄을 쏘면서 제지하였다. 그런데 한순간, 교문 왼쪽 출입구 근방에 대기해 있던 검은 지프차에서 다연발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삼시간에 지프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그 지프차에서 치솟던 검은 연기와 불꽃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바로 그 순간이 전경 한 사람이 불에 타죽는 순간이었다. 분신자살한 학생의 추모제를 막기 위해서 다연발탄을 조작하다가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지프차 속에서 분신되는 장면을 나는 지척지에서 목격하고 만 것이었다. 교문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서울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삼각형 교문 아래 쳐져 있는 철책은 그야말로 휴전선의 철책보다 더욱 견고하게 보였다.

금방 사람이 하나 불에 타죽었는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데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전경들 역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데모 진압을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학생들도 김세진이라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고, 전경들도 방금 죽은 전우의 시체를 넘어 돌진하고 있었다. 바로 전쟁이었다. 적의 생명에는 전혀 무관심한, 아니 아군의 생명에도 무관심한 전쟁이었다. 나는 그 처절한 소란 속에서 철저한 무관심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건 6·29선언 이전의 일이다.

그런데 6·29선언 이후가 분명한 오늘 아침에도 나는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아침인데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우리 동네, 신림동 이야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소설이다. 올해 꼭 10년째 살고 있는 신림동, 늘 오가며 바라보는 박종철군의 하숙집.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작품 하나가 구상되고 있음이 틀림없다.